

한국형 장애인 공동체 모델의 유형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정주**

이선우***

논문초록

본 연구는 서구 장애인공동체 모델이 한국 장애인복지의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시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시설 보호 중심의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사회가 아직 장애인을 온전히 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계를 절충할 수 있는 제 3의 관점으로 접근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라는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공동체인 ‘캠프힐’의 사례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를 분석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진들이 총 2회의 캠프힐을 방문 및 직접 생활하여 문헌연구의 한계를 보충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공동체는 ‘의도적 공동체’의 성격으로 조직되었으며, 공동체 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각자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여자(Contributor)로서, 원가정과 유사한 가정생활단위의 공동생활을 통해 인격적인 친밀감과 공동체 구성원의 공통의 가치가 협의되는 자치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수혜자와 공급자로 나뉘지는 기존 사고의 한계 극복이라는 함의를 주고 있다. 또한 공동체 내외의 작업장에서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각자 부여된 역할이 있으며, 노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공동체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비장애인 구성원들은 삶의 터전으로서 장애인과 함께 살며 함께 일하는 삶을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삶을 통해 생활유지와 자기성찰적 삶을 살고 있었다.

기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과 다른 유형의 서구의 장애인공동체의 모델을 한국적 상황에 맞춰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가능한 장애인공동체의 세 가지의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이 지닌 특징과 장점, 그리고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결론에서는 한국형 장애인공동체의 설립과 지속을 위해 필요한 물질·인적 자원의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한국형 장애인공동체의 정책적·실천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 공동체, 자립생활, 장애인공동체, 한국형 장애인공동체 모델

* 본 논문은 2016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2016. 4. 23.)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논문임

**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관장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2016년 9월 26일 접수, 2017년 2월 5일 최종수정, 2월 6일 게재확정

1. 서론

장애인 복지란 신체 혹은 정신적인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그리고 배려하면서 서로 어울리는 사회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이러한 지향점을 바로 알고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자문한다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을 일정한 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보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즉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격리되어 일정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보호서비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왔으며(남일재, 2009), 비교적 최근에는 장애인 복지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사회적 논제 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 중심 보호서비스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 문제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물결 가운데 효율성이 중시되는 전 사회적인 풍조 내에서 소위 주류 ‘거주시설(舊 생활시설)’은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복지의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점차 이에 대한 비판으로 거주시설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지닌 최선의 시설이라 해도 최악의 가정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설에서의 서비스만으로는 결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가 어려우며,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비윤리적 운영, 불투명한 재정, 편견과 낙인, 시설의 집단화 등 소위 ‘시설병’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김범수, 1994; 김응수·김성진, 2010), 결론적으로는 사회적 배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사회복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이재용·이수천, 2014).

또한 장애인의 선택권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주거권이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권리가자 특히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이념인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주시설과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법적으로 규정된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는 제한적이며, 서비스도 각 시설 종류별로 획일적인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욕구에 부합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에 놓여있다(이상록·김용득, 2014).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

리한 거주시설 중심적 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문제점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이 규모 혹은 생활인 수를 줄이면서, 시설 밖에 있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유기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안진, 2006; 오세윤·홍기원, 2009 재인용).

최근 우리나라도 탈시설화의 흐름 가운데,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거주시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며, 시설에서의 탈피를 주장한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은 장애인이 기본적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며, 정상화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조정함으로써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Finkelstein, 1990; 남일재, 2009 재인용). 또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들 간 지지망 및 연결망을 구성, 상호 교류하며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교환을 하는 움직임도 시작되었다(오혜경, 1998).

다만 과연 탈시설화를 통한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복지의 혁명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탈시설화의 부정적 요인에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해의 부족이 주된 요인이며, 탈시설화를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는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불편함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탈시설화가 서비스수혜자, 즉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서비스 공급자적 시각에서 진행되는 한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정재원, 2003; 오세윤·홍기원, 2009)는 무조건적인 탈시설화만이 만능 정답은 아니며, 진정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준비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즉 사회의 준비도 동시에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 거주시설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준비되어 있지 않는 탈시설화’라는 두 가지의 상대적 관점의 한계를 절충할 수 있는 새로운 제 3의 대안적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시작한 본 연구는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공동체’ 모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과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로 결정한 비장애인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살며, 공동체 안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의 ‘공동체형 거주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캠프힐 운동(Camphill Movement)’이 있다.

서구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기초는 1980년대 이후로 점진적인 대규모 병동 중심

적인 시설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주거권에 입각하여, 그들이 원가족에서 계속 머무르던 지, 보다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 보통의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형태인 ‘의도적 공동체’를 취하고 있다(Emerson et al, 1999). 캠프힐과 같은 장애인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작은 집들이 모인 교외에서 군집 단위에 각 가정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현재 영국에는 약 73개의 시설에서 3,000여 명이 이러한 의도적인 장애인공동체에 살고 있다.

캠프힐과 같은 장애인 공동체의 경우 또한 주거권과 함께 또 하나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권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의미 있는 일자리 제공(High levels of meaningful employment)을 주는 것이 특징인데, 공동체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직업 훈련,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에서 겪는 고용 장벽을 극복하고 있다(M. Randell & S. Cumella, 2009).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지체를 비롯한 발달장애인들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주거권에 대한 선택에 있어 사실상의 제약과 함께 노동권적 측면에서도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이유로 직업재활의 실질적인 대상에서 오랫동안 배제되어 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구의 장애인 공동체가 장애인들의 거주권과 노동권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에 주는 함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도 이러한 장애인공동체가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필요함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서구장애인 공동체와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공동체의 영역을 제시하며, 국내의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아래에서 적용 가능한 세 가지의 유형 제시와 함께 가장 적합한 유형을 ‘한국형 장애인 공동체’로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애인공동체 운동이 실질적으로 설립되기 위해, 그리고 그 지속가능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동체 운동

주체적이며 개별적 인격을 갖춘 ‘자유’를 지닌 각 개개인의 인간은 그 개개인이 모여 ‘사람들’이라는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 안에서 공생적이고 협력적이며, 상호의존적

인 존재로서, 그 집단은 서로의 조화와 균형을 갖추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개별성과 공동체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에도, 급격하게 발전되는 사회 가운데서 개인주의가 강조되면서, 공동체성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주요 사회복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배제’와 ‘소외’ 등의 문제는 지나친 개인주의의 심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소외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방안 중 하나가 바로 공동체 운동이다. 비록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기는 해도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공동체는 이 시대에 대한 위기의식 및 비판의식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이상으로 공동체를 이념화하거나 현실화하는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다(이선미, 2008).

‘공동체’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동질성을 가진 소집단을 공동체로 개념화하는 것으로써 유대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강한 집단으로 대표적인 것에 종교집단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심성적, 정신적인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한정된 의미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공동의 유대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류공동체나 민족공동체 등으로 불리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의 유대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요소에서 지역의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촌락, 사회 등 지역적 조직체 단위라 할 수 있다(서동은, 1993; 이인영·신용웅, 2004 재인용).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논의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의 중간 고리 즉 가족, 친족, 마을의 비중과 역할이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으로 ‘소외되는 현상’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인간과 인간이 서로 친밀한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나의 통합과 결속을 이루는 삶의 공간’ 으로서의 공동체가 생겨나는데, 이러한 공동체를 바로 ‘의도된 공동체’ 라고 한다(이인영·신용웅, 2004).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각종 목적을 지닌 의도된 공동체들이 생겨났는데, 여러 복지적인 문제들 즉 고용, 노인, 빈민, 장애인 등의 사회적 제도의 분명한 한계성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른바 ‘복지 공동체’도 생겨나고 있다(박정향, 1998).

테일러(M. Taylor)에 의하면, 가족, 씨족공동체 등의 자연발생적인 공동체와 구별되는 ‘의도적인’ 공동체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으로는 먼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인 신념과 가치를 공유하며, 둘째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다면적이며, 이러한 관계가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생활환경과 장소가 공유되어야 한다. 마지막

셋째로 ‘호혜성’(reciprocity)을 지녀야 된다고 하고 있다(차정식, 2015).

이러한 테일러의 정의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많은 공동체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 중에는 성공한 공동체도 있으며, 또한 소멸되는 공동체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가 처음 조직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구성원들이 계속 공통된 신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공동체 운동을 정의하면, 구성원의 유대와 연대를 끌어낼 수 있는 공동의 목표나 가치가 존재하며, 그 구성원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표에 동의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을 함께하며, 자발적인 연대로, 자급자족에 의해 참여한다는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시도가 공동체 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의 기존의 사회제도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인 공동체운동

현대 공동체 운동의 물결 가운데, 그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장애인들도 그들이 가진 생활의 방식과 목표를 이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체를 설립하였고, 이러한 모델들이 세계 곳곳에서 시도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시설의 한계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탈시설화의 문제라는 딜레마에서 제3의 모델로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확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역사회 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새로운 복지모델로서 장애인 공동체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다는 의미가 아닌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장애인)’과 비록 눈에 보이는 장애는 없지만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사람(비장애인)’이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공동체의 목적이 성립되는 이유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세계의 장애인 공동체로는 ‘캠프힐’이 있다.

(1) 인지학(Anthroposophie)과 캠프힐 운동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가 주창한 인지학(Anthroposophie)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동일시하여 인간의 영혼 활동이 사고, 감정, 의지라고

판단하였으며(정운경, 2004), 본질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방식이다(김택호·배숙경, 2014). 슈타이너의 이론은 그의 인지학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인간관을 기초로 하며, 인간의 본질을 ‘신체’(body), ‘영혼’(soul or psyche), ‘정신’(spirit)의 세 가지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고 있다(문채련, 2006). 정신과 신체를 양극개념으로 두며, 영혼이 그 두 가지를 매개하는 중간기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세 가지 구조의 영향 및 신체의 기관체계와 연결하며 인간의 감정체 기능, 그리고 신체적·심리적 균형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김택호·배숙경, 2014). 슈타이너에 의한 인지학은 ‘인간에 대한 지식’이 아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식’으로서 그의 철학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 실제로 슈타이너는 1919년 독일 슈튜트가르트(Stuttgart) 지역에 최초로 발도르프학교(Waldorf School)를 설립하여, 그의 교육철학이 담긴 발도르프 교육(Waldorf Education)을 창시하였으며, 특히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과 예술치료 분야, 예술과 건축, 과학, 농업, 경제, 인문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적인 철학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런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영향을 받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바로 캠프힐이다. 캠프힐은 오스트리아 출신 칼 쾨니히 박사(Karl König)와 몇몇 유대인 가정에 의해 시작되었다. 본래 의사였던 쾨니히 박사는 아내인 틸라 마스베어크(Tilla Maasberg)의 가족적 배경이었던 그나덴프라이(Gnadenfrei) 공동생활에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이는 상호 간의 도움과 사유재산이 아닌 공동분배, 강도 높은 종교생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 등을 강조하였다. 1928년 장애 아동과 행동 장애아, 학습 지체아를 위한 시설을 맡아 운영하던 쾨니히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영국 스코틀랜드로 망명하였고, 1940년 영국 애버딘에 최초의 인지학적 장애인 공동체인 캠프힐을 설립하게 되었다.

캠프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특수한 시설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도와가며 사는 곳으로서 비록 혈연에 의해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정신에 의해 맺어진 하나의 가족으로 공동체 내 순수한 인간과 인간 간의 만남을 기초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하며 구성원 상호 간의 도움을 주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를 위해 자금 자족을 위한 공동 가사와 작업장이 함께 있으며, 가정과 작업장에서 장애인은 함께 일

하는 비장애인에게 도움을 받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을 위해 무언가 도울 수 있고, 그에 감사함으로써 상호 인정받는 것을 체험하며 자존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듯 인지학적 관점에서 장애인은 인간 본질에 대한 영적 접근의 한 분야로서의 인식론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본질을 자연적, 물리적 관점에서 아닌 정신적, 영적 관점에서 인식하여 보고 있으며, 인간의 발달도 신적 존재의 의인화와 신적 존재의 영적 복귀라는 종교적, 우주적 현상을 인간의 정신적, 영적 본성과 이에 상응하는 신체적, 감각적 본성이 인간의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호 교류하면서 발달하고 완성되어 가는 인간의 실존적 본질과 관련시켜 이해하고 있는 ‘올동적 순환의 관계’로 보고 있다. 즉 인지학적 관점에서 장애인은 “인식은 완성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달 가능하며, 영혼의 수련을 통해 인간의 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 안에 이해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 내부의 잠재되어 있는 인식 능력을 단련시킴을 통해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한다(김택호·배숙경, 2014).

그렇기 때문에 캠프힐 내에서 장애인은 서비스 공급자적 사고에 입각한 호칭인 이 용자로 불리는 것이 아닌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people with special needs)로 불리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기여자’(contributor)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는 공동체 내에 자신의 역할과 그 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장애를 가진 개인이 일에 대한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캠프힐 공동체에서는 그들의 욕구를 계속 보장하기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 가운데 자존감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은 개개인의 활동을 통한 표현을 통해 창조적인 탐구의 수단으로서 수행되고 있으며, 직조, 그림, 춤, 핸드벨 연주, 노래, 연기, 도자기 만들기 등을 공동체의 문화적인 삶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그들의 발달을 촉진하고 있다.

인지학적 관점에서 공동체 생활은 일종의 사회 치유적(Social Therapy) 프로그램으로 이해된다. 즉,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공동 활동을 통해 즐기고 배우는 모든 공동체생활이 바로 사회치유적 관점에서 진행된다. 사회 치유적 관점은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치유가 필요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전제로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를 학술적인 차원에서 연결 한 ‘사회적 치유 프로그램(Social Therapy Program)’

이 개설되어 공동체 내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역의 대학과 연관되어 학·석사 과정이 개설되는 등 인지학적 관점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2) 캠프힐의 현재

캠프힐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발달장애인들이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풍부한 예술적인 경험과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의 깊은 잠재력을 끌어내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캠프힐 공동체는 개개인의 인간의 깊은 의미와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의 나눔, 그리고 개개인이 공동체의 웰빙적인 삶에 기여하는 것을 가치로 삼고 있다(북미 캠프힐협회 홈페이지 www.camphill.org).

캠프힐에서는 크게 다음의 3가지의 역할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우스 페어렌츠(가정을 이루는 부모로서 주로 부부가 운영), 빌리저(거주하는 장애인), 코워커(장기봉사자와 단기봉사자로 나눌 수 있으며, 하우스 페어렌츠를 도와 가정을 관리하고 빌리저를 돕는 사람)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동가사와 공동생산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진다(김은영, 2014).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고용인들과 외부에서 공동체를 돕는 사회복지사와 의사 등의 전문인 역시 마을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구분	역할 및 특징
하우스 페어렌츠(House parents) 또는 하우스 코디네이터	가정을 이루는 부모로서 부부, 혹은 싱글의 남녀가 맡아서 공동기거
빌리저(Villager)	캠프힐 공동체에 거주하는 장애인
코워커(Co-worker)	장기 코워커(3년 이상)와 단기코워커(1년 이상 3년 미만)로 구분 하며, 역할은 하우스 페어렌츠를 도와 가정을 관리하고 빌리저를 도움
서포트 코워커(Support coworker)	단기 자원봉사자(1년 이하)
전문가	월급여를 받고 장애인을 돌보는 전문가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작업장 책임자)

출처: 김은영(2104)

〈표1〉 캠프힐 구성원

현재 캠프힐은 영국, 아일랜드, 독일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약 80년 가까이 진행이 된 캠프힐은 현재는 공통적인 캠프힐의 모습을 지니기도, 한편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변화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캠프힐 공동체의 모습의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캠프힐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양한 유형을 펼치고 있다. 즉 캠프힐의 기본이념과 정신은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혹은 지방정부)의 지원 여부와 재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캠프힐의 운영은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CVT(Camphill Village Trust) 협회가 조직되어, 각 캠프힐 별 운영을 맡고 있다. 행정의 효율화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나친 조직화로 인해 자칫 캠프힐의 핵심 이념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평도 얻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뉴욕주정부로부터 전체 재정의 50%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도 있고(뉴욕주 코팩 캠프힐),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 입소자 부담금과 후원개발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펜실베이니아주 김버튼 캠프힐). 또한 학령기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캠프힐 특수학교의 경우 주 정부로부터 지역 학교에 배분되어야 할 특수학교예산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현대 캠프힐은 각 나라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구분해 놓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잘라 구분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 생애 주기에 맞춰 특화된 공동체들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 성인 중심의 캠프힐 뿐만이 아니라, 인지학에 근거하여 학령기 장애학생과 봉사자 자녀를 대상으로 발달로프 특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특수학교부터 시작하여, 18세부터 24세의 청년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대학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직업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캠프힐, 그리고 노년기 발달장애인들의 케어 중심의 캠프힐 등 각 캠프힐은 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명	대상	위치	비고
코페이크 캠프힐 Camphill Village U.S.A.	성인	Copake, New York	
김버튼 캠프힐 Camphill Village Kimberton Hills	성인	Kimberton, Pennsylvania	
미네소타 캠프힐 Camphill Village Minnesota	성인	Sauk Centre, Minnesota	
캐나다 온타리오 캠프힐 Camphill Communities Ontario	성인	Angus, Ontario, Canada	
캘리포니아 캠프힐 Camphill Communities California	성인	Soquel, California	
허드슨 캠프힐 Camphill Hudson	성인	Hudson, New York	
허트비트 라이프쉐어링 Heartbeat Lifesharing	성인	Hardwick, Vermont	
캐나다 캐서디아 소사이어티 The Cascadia Society	성인	North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이타 웨그만협회 The Ita Wegman Association of BC	성인	Duncan, British Columbia, Canada	
비버런 캠프힐 특수학교 Camphill Special School	학령기	Glenmoore, Pennsylvania	
트라이폼 캠프힐 Triform Camphill Community	청년	Hudson, New York	
솔테인 캠프힐 Camphill Soltane	청년	Glenmoore, Pennsylvania	
갠트 캠프힐 Camphill Ghent	노인	Chatham, New York	
플로우쉐어 농장 Plowshare Farm	성인	Greenfield, NH	협력기관
오크우드 라이프쉐어링 Oakwood Lifesharing	성인	West Plains, Missouri	협력기관

출처: 북미 캠프힐협회(The Camphill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홈페이지 (www.camphill.org)

〈표2〉 북미 캠프힐협회 소속 기관

3. 장애인 공동체운동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장애인 공동체에 대한 역사가 오래된 서구에서는 의도적으로 구성된 장애인 공동체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다른 거주유형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특징들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공동체가 시작되고 가장 그 역사가 오래된 영국에서는 장애인복지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장애인 공동체가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공동체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삶에 대해, 심층 면접방법을 통해 연구한 선행연구(M. Randell & S. Cumella, 2009)에서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캠프힐 공동체인 보튼 빌리지(Botton Village)에서 거주하고 있는 총 15명(남자 10, 여자 5)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공동체적 삶이 주는 의미와 장점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종사자에 종속되는 삶에서의 해방(The absence of the overt subordination of residents to staff)으로서, 거주인(장

에인)과 코워커(비장애인)들은 같이 일하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돕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두 번째로 다른 지적장애인 친구들과의 관계 촉진(The facilitation of friendship with other people with an ID)으로서 다른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며 부딪히며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된다. 세 번째로 높은 차원의 일자리 제공(High levels of meaningful employment)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겪는 고용 장벽을 극복하고 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의 의미(A sense of community) 부여이다. 마을에서 벌어지는 여러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되며, 지역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

이런 서구의 장애인 공동체 모델이 우리나라에 소개하며, 이러한 모델의 특징들을 소개하는 시도가 차츰 진행되고 있다. 공동체의 특징에 입각하여 장애인 공동체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 알아본 이인영과 신용운의 연구(2004)에서는 서구의 캠프힐은 공동체 생활의 요소인 성원 공동의 가치와 덕목 실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생활, 인격적 친밀감, 운영규칙에 의한 자치 등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 참여 부분에 강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이론에 기반 하여 성인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본 정연수 외(2014)의 연구에서는 서구의 장애인 공동체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마을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시설과의 차이이며,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공동체가 필요함이 핵심 주제어로 도출되었다.

다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공동체를 다룬 연구는 서구 장애인 공동체가 가지는 장점과 우리나라 상황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이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능한 유형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구 장애인 공동체의 특징과 함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실천 가능한 유형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진행 방향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장애인 공동체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탐색적

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연구의 진행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운동의 역사와 정의 그리고 세계 공동체 운동과 우리나라의 공동체 운동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Ⅱ. 이론적 배경’에서 선행하여 다루었다.

둘째, 서구에서 시도된 장애인 공동체 중 대표적인 캠프힐을 중심으로 이러한 장애인 공동체가 주는 특징과 함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서구 장애인공동체 모델을 한국적 상황과 비교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장애인공동체 모델의 유형을 도출할 것이며,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과제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주제의 성격상 통계기법을 사용한 양적연구를 실시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고 관련 자료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장애인 공동체’, ‘캠프힐’ 등 각 주제어를 중심으로 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직접 서구의 장애인 공동체(영국,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식 등을 고찰하기 위해 직접 연구진이 탐방하는 총 2회의 현장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문헌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먼저, 1차 탐방으로는 2014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8일간 아일랜드와 영국에 있는 캠프힐 중 총 4곳 그렌지백(Grangebeg), 브릿지(Bridge), 델로우(Delrow), 세인트 알번스(St. Albans)을 탐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각 기관 시설 탐방 및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면담을 통해 문헌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 출판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두 번째로,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 13일 동안 미국에 있는 캠프힐 중 총 5곳 코페이크(Copake), 트라이폼(Triform), 김버튼(Kimberton), 솔테인(Soltane) 및 비버런 캠프힐 특수학교(Camphill Special School)을 탐방 하였다. 2차 탐방 중에는 특별히 북미 최고(最古)의 코페이크 캠프힐에서 직접 4박 5일 동안 숙박하며, 가정생활 및 작업장 생활에 참여하였으며, 특별히 작업장에서는 직접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봉사자들과 생활과 작업 등 공동체 생활에서 느끼는 것들을 직접 면담하며,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동체

생활에 대한 장점 등을 검증하였다. 기타 각 캠프힐 별로 약 2시간 동안의 현장견학, 질의응답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특별히 출판되지 않는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또한 각 기관별로 예산의 구성(수입 및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탐방 후 부족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 담당자들과 이메일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국내 적용 가능성 및 비교분석을 위해, 연구진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시설 탐방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실정에서 장애인 공동체 모델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파악하였다. 대표적으로 방문한 기관들은 현재 인천 강화의 ‘강화우리마을’, 인천 옹진의 ‘장봉혜림원’, 충북 제천 ‘살림터’, 경남 거제의 ‘애광원’ 등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장애인 고용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사업장을 참고로 방문하였으며, 방문기관은 ‘교남어유지동산’, ‘베어베터’, ‘위캔쿠기’, ‘커피지아’ 등이 있다.

IV. 서구 장애인 공동체의 특징과 함의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사례 분석을 통해 나온 공동체의 특징을 바탕으로 정의된 장애인 공동체의 성격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장애인 공동체인 ‘캠프힐’을 중심으로 장애인 공동체의 특징과 함의를 알아보며, 한국적 상황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캠프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제공하는 공동체로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공동체가 가진 성격적 규명을 통해 공동체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복지적 대안으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분석틀로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캠프힐이 기존의 시설과 다른 점들, 그리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시설에 비해 어떠한 장점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장애인의 삶의 영역을 “참여”, “접근”, “존재”, “생산”, “소비” 부분으로 나눠 삶의 질의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의 척도영역들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Segal & Aviram,

1978). 연구 분석틀을 통해 도출된 서구 장애인 공동체의 특징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 삶의 대안적 모델로서의 장애인공동체

첫째, 장애인 공동체는 ‘의도된 공동체(혹은 계획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공동체 체계인 가족, 친족, 마을 등의 비중과 역할이 줄어들게 되며, 점차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며,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갈등이 다변화 되면서 근대적인 착취 모델 즉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상류층이 하류층을’, ‘유산자가 무산자를’ 착취하는 구조에서 현대인들은 성과와 실적의 목표에 예속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 사회구성원들이 각자가 각자의 삶을 착취하며 사는 구조로 이행하며, 이는 현대인들이 육신의 곤고함과 스트레스와 히스테리의 심리적 발작도 일상화되면서 다수가 다수를 향한 분노와 냉소를 품고 사는 ‘피곤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한병철·김태환, 2012; 차정식, 2015).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중 약자인 장애인들은 이 사회에서 더욱이 철저히 소외되는데, 이러한 소외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생겨난 것이 바로 장애인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공동체는 장애인의 삶, 즉 주거, 일자리 및 여가생활 등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며, 또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위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들어온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내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역사회 내에 고립되어 있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커뮤니티 형성을 궁극적인 모델로 삼기 때문에 장애인의 삶의 질 확보의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할 수 있다(이인영·신용운, 2004).

장애인의 삶의 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공동체 생활은 많은 장점을 지닌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낮 시간에 직업 활동이나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하고, 동료들과 지내는 과정 가운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지역사회활동과 집단 소속가운데 높아진다는 선행연구(Pleet, 2000)와 낮 시간 프로그램 참여, 가족, 친구 및 이웃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Lecher, 2002; Bramston et al., 2002)와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 할 수 있다.

2. 직업 활동을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확보

공동체의 특성이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공동생활과 공동노동을 통한 자급자족성을 지닌다는 것이다(이인영·신용웅, 2004). 자급자족성은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동체 내에서 생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자연이 주는 공간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생산요소를 따라 필요한 만큼,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의 직업 활동은 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이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그 효과성에 대해 검증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 지원 고용 단체를 통해 직업생활을 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보호 작업장에서 한계적인 직업생활을 하는 지적장애인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노승현·황환, 2010)가 있다. 또한 장애인 공동체에서 많이 진행되는 1차 산업 직업 활동(농업)이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농업이 적합한 직종으로써 그 가능성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한 연구(오길승, 2007)와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의 고용실태와 그 대안으로써 농업 분야가 갖는 장점과 전망을 시범 사업을 통해 검증한 논문(현정훈 외, 2007)은 이러한 장애인 공동체의 직업 활동이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장애인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내외에서 진행되는 장애인들의 직업 활동이 하루 일과의 핵심이 된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의 강도는 있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맡겨진 과업이 있다. 각자가 오전 및 오후 일과시간을 통해 맡겨진 작업장에서 일을 담당하며, 생산된 생산품들은 공동체 내에서의 소비 및 지역사회에 판매처를 마련하여 판매하고 있다. 카페, 선물가게, 식료품 가게 등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보통 하루에 백여 명이 넘는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등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남현미, 2012). 또한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각지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일도 하고 있다.

연구진들이 방문한 미국 최고(最古)·최대(最大) 캠프힐 기관인 뉴욕주의 코페이크 캠프힐의 경우 농장에서 채배한 씨앗 약 100여 가지를 종묘용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사업장의 경우 자폐성 장애인의 집중력을 활용하여 판매용 씨앗과 불량 씨앗을 걸러내는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자폐성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한 좋은 방안이라 하겠다. 또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청년기 대상 장애인공동체인 솔테인 캠프힐(Soltane Camphill)의 경우 고교 졸업 후에 사회인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의 직업훈련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장애인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직업 활동이 ‘부’가 아닌 ‘주’가 된다는 점이 아직 발달장애인의 경우 거주시설 내 보호작업장에서의 보호고용 위주의 우리나라와의 장애인 고용정책과 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고용은 장애인들을 사회에 참여시키는 본래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만년 시설인의 지위에 머물면서 사회의 부담을 존치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이정주, 2004), 캠프힐의 경우 노동을 통한 자급자족 및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장애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분류	작업장명	주요상품 / 역할	비고
1차	치유식물 재배 농장 Healing Plant Garden and Workshop	나무, 관목, 허브, 잔디	전 상품 유기농기법 활용
	생명역동농법 ¹⁾ 축산농장 Biodynamic Farm and Gardens	젖소(우유), 돼지	
2차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장 Stained Glass Workshop	스테인드글라스 공예품	생산품 공동체 가정 내 소비 및
	양초 작업장 Candle Workshop	각종 양초	
	목공 작업장 Wood Workshop	각종 목공품(의자, 테이블)	기념품가게 판매
	제본 작업장 Bookbinding	책 제본, 제작 및 표지제작	직조작업장 에서 생산된 천으로 책커버제작
	직조 작업장 Weaving	스카프, 면넵킨, 마른 행주, 패턴 테이블보, 에코백, 형질 매트 등	생산품 기념품가게 판매
생명역동농법 종묘사 Turtle Tree Biodynamic Seed Initiative	생명역동농법으로 재배한 작물의 씨앗 160여 종 재배 및 상품화 (토마토, 양파, 허브씨앗 등)	생산품 외부 인터넷 판매	

1) 생명역동농법이란 Bio+Dynamic이 혼합된 농법으로서, 시들어 가는 땅에 생명력과 재생의 힘을 회복시키는 미래 농법, 작물의 영양소를 되살리는 농법이다. 1928년 독일의 루돌프 슈타이너에 의해

분류	작업장명	주요상품 / 역할	비고
3차	베이커리와 카페 Bakery and Village Green Cafe	빵, 쿠키, 비스켓, 그래놀라, 각종 파스타면, 커피와 차 종류 식사 및 디저트 제조 및 서빙	카페 및 베이커리 별도 운영
	스페셜 케어하우스 Care Houses for those with more medical needs	센터 내 노인거주시설 보조	작업장 외 시설
	푸드 협동조합 Food-Co-op	각 공동생활 가정으로 식료품배달, 외부에서 필요 식료품 구매	
	공동생활가정 가사 Cooking and Homemaking in our Houses	각 공동생활 내 가사일 보조	

출처: 기관 홈페이지 (<https://www.camphillvillage.org>)

〈표3〉 미국 Camphill Village USA, Copake, NY 내 작업장 현황

단계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1 단계	러닝 포 라이프 프로그램 Learning for Life program	18세부터 22세까지의 5년과정의 프로그램으로서, 인문학(liberal Arts), 기능개발(skill development), 직업 훈련을 진행함	
2 단계	솔테인 워크 Soltane Works	1단계를 마친 청년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기술을 중점적으로 훈련하여,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함 (2년과정)	총 7개분야의 일자리 (과수원, 베이커리 & 카페, 소매점 등)
3 단계	솔테인 브릿지 Soltane Bridges	2단계 수료후, 원하는 자에 한해 지속적인 일자리제공을 기본으로, 인근도시에 위치한 그룹홈 생활이나 통근활동을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출처: 기관 홈페이지 (<https://www.camphillsoltane.org>)

〈표4〉 미국 Camphill Soltane, Glenmoore, PA 내 직업훈련프로그램 현황

시작되었으며, 현재 국제데메테르(Demeter)라는 협회에 전 세계 50여 개국의 농민들이 가입되어 있다. 데메테르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일반적 유기농산물 보다 훨씬 그 가치를 인정받고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3.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확보

장애인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공동체 내에서 함께 살고 있는 비장애인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즉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 재활, 치료 등 모든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체 내외에서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캠프힐 공동체는 특별히 이러한 자원들을 임금근로자가 아닌 공동체에서의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삶을 스스로 결정한 지원자 즉, 자원봉사자를 통해 확충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캠프힐에서는 장기자원봉사자 즉 하우스 페어렌츠(House Parents)와 이러한 하우스 페어렌츠를 돕는 중·단기 봉사자인 코워커(Co-worker) 중심으로 시설이 운영된다. 이들의 역할이 바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일례로 아일랜드에 위치한 ‘브릿지 캠프힐’의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이 되는 기초 수당의 일부를 운영비로 지불하게 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캠프힐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인들은 국가로부터 1인당 연 30,000 유로를 수당으로 받고 있으며, 이중 50%는 캠프힐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인당 받는 금액을 모두 합치더라도 꽤 큰 규모인 기관의 운영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된 이유는 약 60% 정도로 구성된 무급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무급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봉사가 일이 아닌 자기성찰의 과정이며, 서로가 성찰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비장애인 봉사자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살고자 스스로가 결정하고, 공동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지원을 공동체에서 해 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공동체에서 지원을 해주며, 생활 유지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동체 내에서 자급자족하거나,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그들에게는 소액의 개인 용돈 수준의 사레비(Pocket Money)가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 이상을 무료 혹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학점 이수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이는 비장애인 봉사자들의 발전과 또한 그러한 역량 강화가 장애인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뿐만이 아니라 예산 활용의 효율성 역시 동시에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중·단기 봉사자들이 세계 곳곳의 장애인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캠프힐의 경우, 대학생들의 갭 이어(Gap Year)²⁾ 프로그램으로서, 약 1년에서 2~3년간의 단기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그리고 외국생활에 대해 많은 비용지출 없이 경험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방법의 경우 지원한 봉사자가 공동체가 지닌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봉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양면적인 면도 있지만 공동체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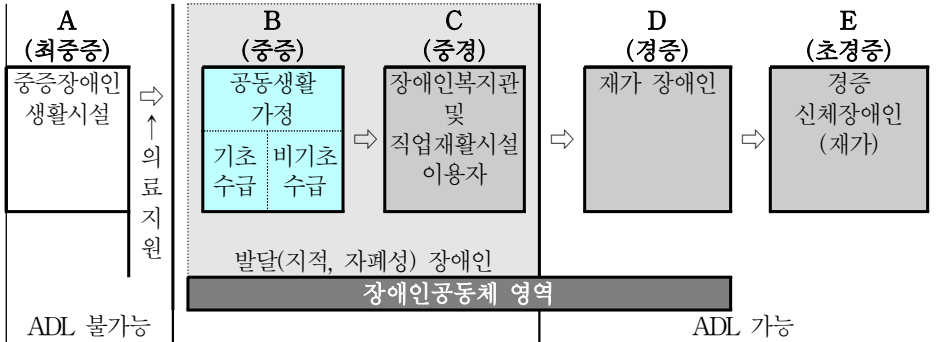
V. 한국형 장애인공동체의 시도 가능성

1. 서구 장애인공동체와 한국 장애인복지간의 비교 분석

앞서 살펴보았던 장애인 공동체 모델은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직업재활, 서비스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기반의 장애인 공동체이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자립생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델을 국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조하여 설명한다면 장애인 공동체 모형은 먼저 주거분야에서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유사하게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소규모 가정형 시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법령상 공동생활가정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며, 임금을 받은 고용인(사회재활교사)이 관리하는 구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지역사회로 나와 있으며 가족적인 환경을 구성해 준다는 것은 비슷하나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거주생활뿐만이 아니라 일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구조는 우리나라의 공동생활가정,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며,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이 분절화되어 있는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시설이라 할 수 있다.

2)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봉사, 여행, 진로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활동을 체험하며 흥미와 적성을 찾고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



※ 정부(운영 사무비 지원) + 개인(주거연금, 장애수당) 투입

[그림1] 한국형 장애인공동체의 영역

서구 장애인 공동체 모델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자급자족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듯이 시설 내에서 일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농업, 목축 등을 통해 자급자족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직업재활 정신의 원형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철저한 자원봉사자 활동을 중심으로 시설이 운영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겪는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만 운영비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수당의 일부를 지불하게 하고 있어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구분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서구 장애인공동체 (캠프힐)	
장애유형	중증 신체, 농아, 시각 및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지적 및 자폐)	
장애정도	ADL 미흡	ADL 가능	
조직 운영	재정 총당	정부지원(식비, 피복비, 운영비, 인건비), 후원금	정부지원, 장애연금, 주택연금
	전달 체계	민간운영(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이용자와 사회복지사 1:10)	비영리조직가, 자원봉사자 (이용자와 자원봉사자 1:1)
	정책 결정	이사장(이사회), 사회복지사	공동체구성원, 장기자원봉사자, (초빙된) 외부전문가집단
	관리 감독	정부평가	정부평가

※ 위 표는 드종(G. DeJong), 올리버(M. Oliver) 모형을 토대로 재구성함.

※ 유럽의 경우 지적, 자폐장애인은 중증장애로 판단함.

※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처리능력)

<표5> 서구 장애인공동체와 국내 장애인생활시설 간 비교

2. 국내 적용가능성 모색: 3가지 유형 제시

지금까지 살펴본 서구의 장애인 공동체 모형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하다면 법령 중심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 법적 인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공동체의 핵심요소인 “직업활동”과 “거주생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의상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A형, B형, C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에 직업재활시설을 설립하는 유형(A형)이 있다. 본 유형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시도되고 있는 방법이다. 법적으로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시설로 인가받으며, 기관 내에 직업재활시설을 별도로 인가받아 함께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인천 강화의 ‘강화우리마을’, 인천 용진의 ‘장봉혜림원’, 충북 제천의 ‘살림터’ 등이 본 유형에 속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유형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받으며, 만약 설립이 될 경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공동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이 안정된 재정 지원 체계 및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유형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와 떨어진 시설에 기반을 두며 그리고 시설 운영의 핵심이 자원봉사자가 아닌 임금을 받는 사회복지사(직업재활사)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테일러(M. Taylor)의 의도된 공동체의 특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을 적용할 경우 공통의 신념과 가치 공유 및 구성원들의 관계성에 있어 다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두 번째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들의 공동체를 마련하며,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사업장(직업재활시설 혹은 표준사업장)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별도로 설립하는 유형(B형)이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먼저 설립 혹은 기존의 시설을 연계하여, 이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사업장 설립을 통해 운영을 하는 방법이다. 이 유형의 경우 공동생활가정을 개설하기 위한 거주지 마련과 초기 장애인 사업장을 개소하는데 다소 많은 비용은 소요되겠지만, 거주에 대한 현행법상 하에 법적인 보호 및 근로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지역사회 속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장애인 공동체의

시도에 적합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거주시설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015년도부터 예산의 집행체계가 중앙정부로 환원된 거주시설에 비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예산은 아직 각 지자체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210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 700개소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보통 1개의 공동생활가정 당 지원금의 평균은 3,000만 원 내외로서, 전체 4180억 원인 거주시설의 예산 지원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와 운영비의 만성적인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에이블뉴스 2015년 3월 20일 보도자료). 이를 위해서는 안정된 재정 충당 방법이 성공의 필수 충분 조건이며, 운영 법인 확보를 통한 재정 충당 및 서구처럼 중·단기 자원봉사자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장애인 중심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 건립과 기업 내의 기숙사 건립 유형(C형)이 있다. 이 유형은 앞서 두 유형과 다르게 사회복지사업법 내의 복지시설 유형으로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닌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세우며, 그들의 거주는 인가 기준이 엄격한 복지시설에 비해 비교적 쉬운 회사 기숙사를 건립하여 함께일하는 비장애인 근로자(기숙사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와 장애인이 함께 거주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럴 경우 서구 장애인 공동체와 유사하게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장애인 중심 기업의 설립을 통해 표준사업장 지원제도,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제도, 장애인생 산품 우선구입 등 직접적인 장애인 고용정책과 함께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유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장 서구 장애인공동체유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B 유형과 같이 초기 건립비용의 확보 문제, 그리고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안전망이 앞서 두 유형에 비해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비장애인 봉사자를 어떤 방법으로 모집할 것이며,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본 세 가지의 유형이 모두 한국적 상황에서 시도가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A형에 비해 B형과 C형이 현행법상 시도 가능한 한국형 장애인 공동체의 유형으로 보다 적합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A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주

시설이라는 한계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연한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는 B형과 C형이 보다 서구의 장애인공동체가 가진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유형일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B형은 현행 복지관련 법령상에서 지역기반 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을 기반으로 그들의 완전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시설통합형 장애인 공동체”이며, C형의 경우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그들의 주거를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장애인중심 근로거주 혼합형 회사” 라는 차이가 있다.

본 3가지 유형의 한국형 장애인 공동체의 유형은 비록 그 시작이 서구의 장애인 공동체와 차이는 있겠지만, 장애인의 삶에 있어 거주와 노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시도해볼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구분		A형: 거주시설 + 직업재활시설	B형: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사업장	C형: (기업)기숙사 + 장애인중심기업
법적 인가	거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30명 이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0명 이하)	해당 없음 (건물 안전기준 별도확보 필요)
	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좌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표준사업장

〈표6〉 한국형 장애인공동체의 세 가지 유형 분류

VI. 결론: 한국형 장애인공동체의 나아갈 방향

지금까지 한국형 장애인 공동체의 시도를 위해 비교 분석 및 국내 적용을 위한 세 가지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장애인 공동체는 어떠한 역할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나아갈 근본적인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서구의 장애인 공동체가 설립되고, 또한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1940년대에 스코틀랜드 지방에 이민자로 정착한 난민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극복해보기 위한 자급자족 체계를 바탕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즉 이들은 공동체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함께

한 일종의 핵심 그룹(Core Group)으로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자본주의의 물결 가운데, 1980년도부터 정부 지원을 조금씩 받자 이러한 장애인 공동체의 자립성은 그 수가 많아진 유급 고용자들로 인해 큰 변화의 물결에 부딪히고 있다(김은영, 2014).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많은 상황에서 분절적인 재정 지원이라는 장벽 앞에서, 장애인 공동체는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계속 유지하는 근원적 원동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장애인 공동체의 실현 및 유지되기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로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듯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나뉘어 있으며, 중복서비스에 따른 행정비용의 과다 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공동체가 가진 주거와 노동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이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적 영역에 대한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기반적인 본 장애인공동체의 특징에 따라 관심 있는 지자체 등의 관련 조례 설립 등을 통해 장애인 공동체를 설립 및 운영 하려고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의 관심 및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안 없이 단순히 국가가 하지 못하니 민간이 진행해야 된다는 식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원동력을 지닌 집합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공동체 모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건전한 물적·인적 자원의 확보가 용이한 종교단체의 참여가 자원 확보에 있어 좋은 후보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종교단체는 인간에 초점을 두고 좁게는 포교의 수단으로서, 넓게는 종교성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러 사회봉사에 힘쓰고 있다.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종교의 관심은 장애인들의 사역에 장애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이러한 사회봉사 사역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최대열·이상록, 2014). 또한 종교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자들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개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자원의 확보의 용이성에서 본 연구진은 뜻있는 한국의 종교단체들이 이러한 장애인 공동체 모델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특히 기독교계에서 영성의 회복공간으로서 장애인 공동체의 시작이 구현되기를 바라며 촉구해본다.

셋째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연구진들이 방문한 캠프힐 에서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의 여러 활동에 함께 참여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역사회 내에 고립된 장막을 치고 있으며, 외부인들의 방문은 극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도,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보는 시선은 불편한 시선 혹은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한국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바로 거주와 생산 기반이 통합된 장애인 공동체가 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단순 임가공과 공산품 생산중심의 장애인 생산품이 아니라 설립 초기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캠프힐처럼 공동체 내에서 생산한 유기농 농산물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하고, 소화가 가능한 양질의 생산품을 지역사회에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구성해준다면, 이러한 생산품의 선순환으로 인해 차근차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것이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남어유지동산’, ‘베어베터’, ‘위캔쿠키’, ‘커피지아’ 등 다양한 장애인 사업장에서 유기농 농산물 재배 및 판매, 카페, 제과제빵, 꽃배달, 인쇄업, 체험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전 산업 영역에서 장애인 일자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점차 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직 한국형 장애인 공동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 시도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장애인 공동체의 시도를 언급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추후 장애인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한 후속연구를 통해 한국형 장애인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길 바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은영 (2014). “발달장애인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편. 『제 2회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국외연수 자료』. 경기: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43-59.
- 김응수·김성진 (2010). “장애인거주시설이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독일 디아코니아 기관사례를 중심으로.” 『교회사회사업』. 14. 7-28.
- 김범수. (1994). 『탈시설화와 재가장애인사업의 전개방향』. 경기: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
- 김택호·배승경 (2014).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대한 미술치료적 관점에서의 탐색 연구.” 『미술치료연구』. 21(5). 853-874.
- 남일재 (2009). “장애인 복지영역의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2(2). 253-273.
- 남현미 (2012). “Camphill, 지적장애인의 공동체 삶.” 『2012년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세계 각국의 캠프힐 사례를 통한 한국 장애인 거주 서비스 환경 변화의 모색』. 서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편. 223-228.
- 노승현·황환 (2010). “자기선택과 지역사회통합의 기회가 성인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17(2). 233-257.
- 문채련 (2006). “유아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5세 유아의 활동분석 : 발도르프 프로그램과 생활주제중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박정향 (1998). “복지공동체 운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여성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서동은 (1993). “남양만 기독교 두레마을의 형성과 확산.”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 안진 (2006).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사회복지시설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31. 279-305.
- 오길승 (2007). “1차 산업 분야에서의 장애인 사회적 기업 육성 가능성 및 전략에 대한 고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6(1). 73-99.
- 오세윤·홍기원 (2009). “장애인시설 탈시설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년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발표논문집』. 서울: 서울행정학회. 561-588.
- 오혜경 (1998).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리뷰』. 3. 39-63.
- 이상록·김용득 (2014). “성인지적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거주시설 유형에 대한

- 연구 - Q 방법론의 적용.” 『한국장애인복지학』. 23. 119-142.
- 이선미 (2008). “근대사회이론에서 공동체 의미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사회학』. 42(5). 101-139.
- 이인영 · 신용웅 (2004). “장애인 공동체에 대한 연구: Camphill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8(2). 45-76.
- 이재용 · 이수천 (2014). “거주시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 연구.” 『한국케어매니저먼트연구』. 12. 51-77.
- 이정주 (2004). “제 3섹터형 장애인중심기업: 표준사업장에 대한 논의.” 『장애인고용』. 51. 32-48.
- 정윤경 (2004). “발도르프 교육학.” 서울: 학지사.
- 정연수 · 이영선 · 김승현 · 박원희 (2014). “성인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근거이론적 접근.” 『지적장애연구』. 16(1). 245-281.
- 정재원 (2003). “맹목적인 탈시설화의 위험성.” 『장애와사회』. 창간호. 16-33.
- 차정식 (2015). 『기독교 공동체의 성서적 기원과 실천적 대안』. 서울: 도서출판 짓다.
- 최대열 · 이상록 (2014). 『교회와 발달장애인』. 경기: 도서출판 나눔사.
- 한병철 · 김태환 (2012).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 현정훈 · 진홍섭 · 홍자영 · 안수향 · 최종철 · 이호성 (2007).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의 1차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농업분야 고용사례 및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경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P. Bramston, K. Bruggeman & G. Pretty (2002). “Community Perspectives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Development and Education* 49(4). 385-397.
- E. Emerson, J. Robertson, N. Gregory, C. Hatton, S. Kessissoglou & A. Hallam (1990). *Quality and Costs of Residential Supports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Quality and Costs in Village Communities, Residential Campuses and Dispersed Housing Schemes*. Hester Adrian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Manchester, Manchester.
- V. Finkelstein (1990). *Attitudes and Disabled People World Rehabilitation Fund..* New York: Press.
- R. C. Lecher (2002). “The Relationship of Day Program Participation to Quality of Life for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who have been Deinstitutionalized into the Community.”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 L. Pleet (2000). "Quality of Life fo Intellectually challenged Adults Living in the Community." Unpublished M.S.W.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 M. Randell & S. Cumella (2009). "People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Living in an Intentional Commun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3(8). 716-726.
- S. Segal & V. Aviram (1978). "*The mentally ill in community-based sheltered care: A study of Community care and Social Integrati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www.camphill.org (검색일 2016.5.30)

“북미캠프힐협회 홈페이지.”

http://abnews.kr/ep4. (검색일 2016.9.1.)

에이블뉴스 2015. 3. 20일자(인터넷뉴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미래가 안 보인다.”

Abstract

Study on the Type and Applicability of Korean Community Mode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Jung-Joo Lee (Hanmaum community welfare center)

Seon-Woo Le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whether a community mode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Western countries can be an alternative to social welfare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Although self-reliance which promotes ‘deinstitutionalization’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in order to overcome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residential facilities of the institutional care centers, the realistic situation that Korean society is not yet ready to fully embrace people with disabilities must also be considered. Under the circumstances and in order to compromise such situ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the ‘Community’ concept can also be applicable in Korea as a new social welfare alternativ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urthermore, in this study, the cases of “Camphill” in Western countries were analyzed which is based on theoretical concept of a major study, investigating whether these cases can be applied to Korean situation. As a research method, whilst focusing on literature study, the researchers visited and lived in Camphill itself two times, try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iterature reviews.

This study found that the disability community is established as a ‘purposed community’ and all the people with or without disability in the community bears his/her own role and are called ‘Contributor’. The community allows its members to enjoy autonomous living with intimacy and common values, which can be negotiated through sharing the community life in a house unit. This in turn implies that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thinking, which is divided into service recipients and providers, can be overcome. All community members take certain roles inside and outside the community for technical as well as for mental

self-sufficiency. The study discovered that the members without disability also chose to live with members with disabilities as a ground of their life, whilst continuing to live in self-reflection.

In this study, in order to apply the model of the Western commun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itted to Korean situation, three types of comm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been proposed and explored features as well as limitations of each community type. In Conclusion, it was noted through this study that securing necessary resources is essential. Not stopping here, practical policy propositions were made. Finally, this research discussed limitations to the present study and made suggestion for follow-up research.

Key Words: disabilities, community, self-reliance, community model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ommun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